

유월절 만찬에서 주의 만찬으로

성경말씀: 눅22:7-20

사람은 다 죽지만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주님은 그 날을 아신다. 창세 전에 정해졌다. 사람은 다 죽지만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고 살려고 태어난다. 그런데 주님은 삶의 최종 목표가 죽는 것이다.

침례자 요한의 증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피, 죽어야 한다.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어났다. 속박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파라오가 이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자 드디어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예비책: 어린양을 죽여 그 피를 문기둥과 인방에 바르라(출12:7). 파멸시키는 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12:23). 그날은 유월절, 1월 14일, 보통 1월 14일 오후3-6시경에 죽음.

6시가 지나면 곧바로 15일이 되면서 무교절

그날 밤에 이집트 땅에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이 죽음(12:29)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혼비백산(31), 드디어 이집트를 출발함,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거할 민족 이것은 영원히 지킬 명절(24-25)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이집트는 세상, 파라오는 마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과 피, 대속의 죽음

실체로 예수님이 어린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한다. 반드시 1월(니산) 14일

유대인 학자 에더샤임 등의 증언: 예수님의 출생 전에 유월절 풍습에 조그만 변화가 나타남. 유대인들은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어린양과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곁들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에 성대한 만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14일을 예비일이라 부름

눅22의 유월절 만찬은 13일이 끝나고 14일이 시작되는 때(수요일 저녁)에 이루어짐

다락방 준비(7-13)

반드시 어린양을 주어야 하는 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7)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함.

주님은 유다의 계획을 아시고(1-6) 두 사람만 보냄: 1월 14일(목) 오후 3-6시경에 죽어야 함

이름도 모르는 제자 다락방 준비(10), 사용 허가, 들은 유월절 만찬 준비: 어린양, 무교병, 포도즙, 쓴 나물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나귀 임자가 빌려 줌,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

유월절 만찬(14-18)

제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매해 지키는 유월절 만찬으로 생각하고 모임(14)

주님을 중심으로 요한은 그분의 오른쪽, 유다는 왼쪽(요13:23)

예수님의 사랑(15): 죽기 전에 이 유월절 어린양 먹기를 바라고 바랐다. 사실 나는 이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민족의 반항과 거부, 십자가 죽음이 내 초림의 목표이다.

기독교는 주님의 죽음에 달려 있다.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 통치가 있다.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려 한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죄 없는 어린양이 죽되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한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겼는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피 보자기 안에 들어갈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

유월절 중지(16):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더는 없다. 앞으로는 천년왕국 잔치(29-30)

어린양의 혼인 만찬(계19:7)

십자가 이후의 영광, 고난 이후의 왕국을 미리 보심

주의 만찬 제정(17-20)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 시점에 주의 만찬 제정(고전11:23-24)

원래 유월절 만찬은 4개의 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기도, 첫째 잔, 쓴 채소, 시편 113-114, 둘째 잔, 어린양+무교병, 셋째 잔, 시115-118, 넷째

잔, 아마도 시115-118 낭독 이후에 마지막 잔을 남겨놓고 주의 만찬 제정

1. 빵, 감사, 떼어 주심(19): break, broken(11:24), 우리를 위해 준 몸이다, given .
2. 잔도 그와 같이 함, 잔은 흘린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20): 지금까지는 구약, 이제 새 상속 언약을 주는 자가 죽으면 드디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히9:16-17).

구약도 피로 비준됨(출24:3-8, 히9:18-21)

이 새 언약은 반드시 피 안에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히9:22)

히10:16-18,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주의 만찬의 목적(19-20)

1. 기억하라(19),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다.
구원받은 자의 첫째 의무: 기억하라.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누룩이 들지 않은 이 빵과 포도주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우리는 기념으로 이 일을 행한다.
우리가 이 빵과 잔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다.
2. 천주교의 미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미사는 화체설, 빵과 포도주가 신부의 기도를 통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교리, 실제로 그것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행위, 더는 제사가 필요없다. 희생 예물이 필요없다(히10:11-14, 18).
3.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음 선포(고전11:26)
뒤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으로는 그분의 재림 사모
영화로운 몸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고대함
또한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고전11:27-32).
심지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자도 있었음(30)
4. 우리는 하나이다(고전10:17).
교파, 남녀노소, 피부색, 상관없다. 우리는 다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에 들어옴(고전12:13)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만 있다(엡4:4-6).

결론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일정에 따라 유월절 행사 뒤 주의 만찬 제정

1. 과거의 유월절
2. 내가 실제 어린양, 주의 만찬, 빵과 포도즙,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3. 재림의 때까지
4. 참여하는 자들이 다 내 안에서 하나이다.

찬송가 214, 141